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허물을 사함받는 복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2).

죄는 바이러스와 비슷해서 바이러스가 몸을 병들게 하듯이
죄도 인간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처럼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그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내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살이 아플 뿐만 아니라 뼈속까지 아프게 됩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 하용조